현·장·탐·방

발전하는 아산의 미래를 준비한다!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고속철도가 시원스럽게 뚫려 서울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위치한 아산시.
나날이 발전하는 충청지역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희망의 도시 아산시는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 개발의 중심에서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활발한 움직임을 숨 가쁘게 뒤쫓아 보았다.

20만 아산시민의 마실 물과 하수처리를 책임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아산시는 지난 2004년 11월 8일자로 인구 20만을 돌파했다. 인구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충청남도 내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2010년에는 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다보면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의 시설확충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에 따라 도시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불철주야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상하수도 시설은 도내 최고 수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도 · 농 복합도시인 아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1998년에만 해도 48.8%로 취약했다. 그러나 1996년에 수립된 아산시 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아산시 전역을 5개 급수구역으로 나누어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에 주력해온 결과, 현재는 상수도 보급률이 64%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3년 내로 90% 이상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질 불량과 생활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어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15천㎥/일 규모의 신창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과 총 22㎞의 관로매설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선장, 도고, 신창면을 비롯한 시내외곽지역의 생활 용수난을 해소하였다. 현재 농어촌 지방상수도 1차 사업으로 송수관 개량 사업이 준공되었고, 2006년까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2차 사업으로 4천㎥/일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매설 38㎞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염치읍, 음봉, 둔포면 전역의 수질 불량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라 늘어나는 용수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아산으로 집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1차 사업이 진행중인데, 2006년까지 8천㎥/일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매설 27㎞가 준공되면 영인, 인주면에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인주공단의 기업들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04년 한 해 동안 무인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 2월부터는 각 정수장과 가압장, 배수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이로써 대시민 신뢰도 및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하는 도시 위상에 발맞춘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

아산시의 하수도 사업은 시 · 군 통합과 도시환경시설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03년 6월부터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 하수도 보급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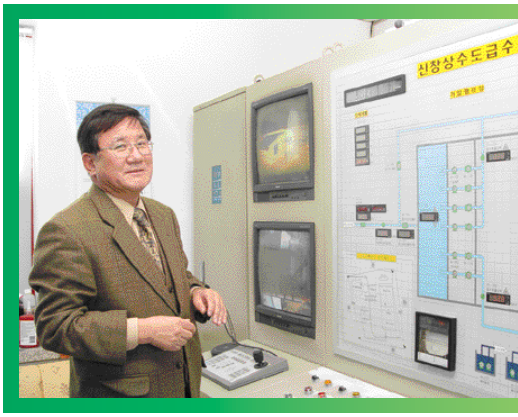
우선 지난 1996년에 준공하여 가동 중인 아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 36천㎥/일, 사업비 292억원)에 대한 1단계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462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6월 착공하였고, 2007년 5월 준공이 완료되면 시설용량이 27천㎥/일 늘어나게 된다. 또한 배방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 5천㎥/일, 사업비 287억원)과 둔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 3천㎥/일, 사업비 219억원)을 2008년까지 신설하기 위한 기본 및 설계용역을 발주, 시행

▲ 아산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현장

▲ 아산시 농어촌지방상수도 1차 준공식

▲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조감도

▲ 아산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배수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 무인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중에 있다. 더불어 고속전철 개통과 더불어 급속히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 신도시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시설용량 66천㎥/일, 사업비 2,030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현재 기본 설계 중이다.

이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함께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9㎞에 이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2010년까지 3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시설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다행히 아산시의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수도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사실 지방의 지자체 대부분이 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산시의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인다.

우선 아산시는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의 용역대가를 산정하면서 공사별 단일감리를 지양하고 유사공정의 공사에 대하여 통합감리로 용역을 추진하여 13억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수도개발담당이 중심이 되어 '원인자 부담' 이라는 조례를 마련, 시설이 필요한 사업자가 직접 사업비를 내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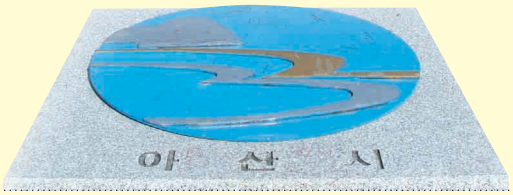
그 결과 시설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게 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주민의 곁에 가까이 다가선 상수도 시설

이밖에도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상수도 시설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산시의 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신창배수지 등 4개소를 개방했다. 현재 이곳에는 체육시설과 조경을 갖추어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산시의 상하수도 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시 곳곳에서 시설공사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시설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강춘구 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지 않아 매일 밤늦게 까지 야근을 하며 각자의 업무 처리 능력을 200%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함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2005년부터는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던 온양온천의 수질관리 업무까지 맡게 된다고 하니, 아산시민들은 물론이고 아산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깨끗한 물 관리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사업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아산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그들의 업무량과 중요도에 걸맞게 규모는 물론이고 위상도 더불어 발전하기를 바란다.

충남 지역 발전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열정
강희복 아산시장



강희복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의 환경, 물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동안 충남 지역 발전에 남다른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일해 왔던 강 시장은 아산시의 발전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고속철도의 개통과 아산신도시 및 삼성 LCD의 탕정지방산업단지 개발 등과 더불어 도시발전과 인구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1월 8일자로 마침내 인구가 20만명을 돌파하였고, 2010년에는 50만명, 2016년에는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확장에 발맞춰 아산시는 모든 행정을 누구나 살기 편하고 안락한 스마트 도시로 가꿔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희복 시장은 아산시의 시책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은 아산시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 50만의 도시건설을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도시기반조성과 산업기반조성 사업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상하수도 관련 기본 정책은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상수도 송·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상수도관을 전부 매설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시행할 수 없음을 강희복 시장은 안타까워했다.

"국도에 대하여 60만명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인관을 매설 중에 있으나 소요사업비가 기채 및 국고지원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까지는 국도변의 상수도관을 모두 매설하여 기본적인 시설을 완료한 후에 지방도 및 군도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희복 시장은 아산시의 기본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시의 상하수도 사업현장이 매일 5~6군데 이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대의 공사를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의 경우 모든 상수도 배관설치는 물론 하수도·가스시설 등의 공사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굴착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공사도중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하여 교통 통행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강희복 시장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을 조금 더 늘려 여러분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일이므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